

신약개론 1강

신약배경사

신약은 잘 아시다시피 New Testament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뜻이지요. 구약은 Old Testament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하급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신약만 중요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학자들이 화내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의 연속성'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가 있구요.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은 총 13권이구요. 공동서신이 8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의 목적은 저자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머물지 않고 독자들을 자극하여 같은 믿음과 삶의 길로 끌어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목적 의식이 강한 책입니다.

현재 우리가 널리 읽고 있는 개역한글성경은 1938년에 처음 출간되었으며 1952년, 1956년 두 차례에 걸쳐 철자법, 맞춤법을 수정한 성경입니다. 이후 공동번역은 1972년, 현대인의 성경은 1977년, 표준새번역은 1992년, 개역개정본은 1998년 출판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이 출간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 개역성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어성경으로는 NASB와 ESV성경이 있습니다. NASB는 히브리어 원문과 문법 및 번역에 있어 가장 충실히 번역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설교를 하러 오셨던 총신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김대웅 목사님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NASB를 추천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같은 단어의 반복이나 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ESV(English Standard Version)는 NASB보다는 현대 영문법을 좀 더 반영한 번역본인데요. 그럼에도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려 했기 때문에 유용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매너리즘'입니다. 저희는 특히나 매년 신약성경으로만 경건의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작년에 이 것 봤었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하고 깊이 없는 묵상과 피상적인 적용으로 끝나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낱설게 하기'입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어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입니다. 개역성경으로 경시를 하시다 매너리즘이 온다면 NASB나 ESV 또는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병행하여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못 봤던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현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바로 조상경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고치고 바꾸고 인도합니다.

*신약성경 배경사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온 스토리들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삼일절이었죠. 삼일절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일어나려면 19세기 말의 국제정치,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관계,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앞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않고서는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앞의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대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신약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때 한 교수님은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보통 성경 백독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 자의적 해석 등을 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을 읽어도 각 권의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언제 어느나라에 멸망했죠? 기원전 722년에 앗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중 이주 정책을 실행했는데요.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대신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정착해 살게 했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사마리아)은 이방인과 혼혈족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고 유대 역사에서 무시를 받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오죠.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나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목축업자나 농부 등을 제외하고 귀족, 귀인들은 바벨론 수도인 수사나 여러 도시로 포로로 끌려 갔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하 7:11-17에서 나단을 통해 다윗가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충격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첫 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징벌은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에 성실

하신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적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단적 회개운동의 한 모습입니다.

둘 째, 그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다시 준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가를 다시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편, 느부갓네살의 성전 파괴로 인해 성전 중심 신앙을 상실한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 생활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삼상 15:22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 기도와 선행으로 하나님께 용납 받으려 했습니다.

또한 토라(율법)를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생긴 것이 구전(Oral Law)입니다. 구전이란 율법에 대한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까지 설명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몇 킬로까지 걸어가도 되는가? 등이었습니다. 회당과 구전은 예수님 당시에 주 활동 무대와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구전으로 해석된 내용을 뒤집어 엮으시죠. 예를 들면 고르반 제도 있죠?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 부양할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고르반 제도도 구전이죠.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어긴 거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신 겁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바사)의 고레스 왕이 귀환을 허락함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피정복민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종교를 영위하도록 허락했고 그 신전에서 왕인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 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다윗 왕가를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때 있었던 언어적 변화로는 아람어가 공식적인 언어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람어와 동종 언어인데요. 아람어는 유대인들에게도 주요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성경을 읽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 헬라 시대가 옵니다. 헬라 시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주전 356년에 태어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고 일리아드에 나오는 전사인 아킬리스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13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역을 정복했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 통치권 밖에 있던 영토까지 정복했는데요. 그가 정복한 구역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남부 러시아에서 북부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331년에 헬라의 통치권 아래 들어갔는데요. 정복된 다른 대부분 민족들처럼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헬라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남아 있는 한, 페르시아 통치 때처럼 동일한 예배와 정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자기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랬는데요. 하지만 너무 큰 성공이 자만을 불러 왔을까요? 그는 동방으로 진군해 가면서 자신들의 통치자를 신과 구주로 환호하고 예배하는 민족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가 점차 그것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도덕성도 갈수록 부패하여 한바탕 큰 술잔치를 벌인 후 열감기 또는 말라리아에 걸려 서른 한 번째 생일 직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의 결과들은 로마 시대와 기독교 발흥의 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헬라 통치는 시골 중심적이 아니라 도시 중심적이어서 제국 안의 생활수준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대중 전달을 촉진했으며, 복음을 포함한 소식들이 각 영토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정복의 결과 중 가장 큰 것은 헬라어의 확산이었습니다. 모든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헬라의 병사들 및 상인들과 사업을 해야 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배워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헬라어는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코이네(koine)의 뜻은 “공통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헬라어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긴밀히 유지되던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히브리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번역본을 셉투아진트(Septuagint),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70”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따로 세울 수가 없었죠. 그의 부하들이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다툰 기간이 주전 323년부터 주전 301년입니다. 처음에는 네 제국으로 나뉘었다가 다음에는 세 부분 마지막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집트에 근거한 남쪽 왕조는 톨레미 왕조였고 시리아를 근거로 한 북쪽 절반은 셀류쿠스 왕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딱 끼여있는 영토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조가 서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꼭 공격해야만 하는 장소였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 아래에서 비교적 평온한 시절을 보냅니다. 이 시대에 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논 파피루스에 보면 이 시기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지역 사람들에게 헬라 당국을 위한 중개인으로 세금 걷는 일이 위탁되었습니다. 이 관행이 로마와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복음서에서 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혐오하는지 역사적 흐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셀류시드 왕조 하에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와 동일한

정책으로 비교적 평온함을 누렸지만 안티오커스 4세때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바칠 조공을 위해 엄청난 세금을 부가했으며 셀류시드 왕조의 부흥을 위해 헬라화를 강경하게 추진합니다. 안티오커스는 자신에게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분명히 나타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후대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안티오커서를 비방한 자들이 그를 오히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논평했는데요. 그 뜻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안티오커스와 신실한 유대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하시딴(Hasidi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헬라화를 시도하는 안티오커스에 대한 반감이 대단했습니다.

안티오커스가 이집트에서 군사 원정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전역에 그가 살해당했다는 거짓 소문이 확산되었으며, 그 소문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즐거워하고 축하할 만큼 그들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시리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안티오커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던 길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격하여 수백만 달러 가치의 거룩한 물건들과 엄청나게 비싼 보물을 고집어 냈고 전승에 의하면 하루에 유대인 4만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집트 원정 후에 또 예루살렘을 약탈했는데요. 도시 이곳저곳에 불을 놓았으며,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성전을 제우스 올림피우스로 개명하고 성전에 이방 제단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금했습니다. 토라도 복사하지 못하게 하고 토라 사본들을 불태웠습니다. 나라 전역에 있는 수많은 제단들에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미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적대감은 유대 민족주의와 더불어, 신약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22:3-21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가 헬라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두들겨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그가 무리에게 아람어로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잠잠히 그의 변호를 들었는데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 개종한 이야기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폭발하죠? 주님이 바울을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는 말을 듣자 그들은 목소리 높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종교적 배경

기독교가 탄생한 세계도 지금과 동일하게 수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지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종교들이 당시 종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리는 종교를 들으시면 아 이걸 지금

어느 종교랑 거의 흡사한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 전통적 신화

주전 4세기 3세기는 헬라 신들의 고전적 만신전(pantheon)의 인기가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예요. 제우스와 헬라(올림푸스 산 위의 "왕"과 "여왕"), 헤르메스(소식을 전하는 신), 아폴로(태양의 신), 포세이돈(바다의 신),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사랑과 다산의 여신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시대가 될 무렵에는 이런 신화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퇴보했습니다. 과학적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불타는 구면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헬라 신들의 땅을 유린한 것을 보면서 헬라 신들은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신화가 변방으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있었는데 특히 시골 지역이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12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신들과 연관된 연례 축제, 성전 의식들은 계속 지속되었고 그 지역 상인들과 성전 관리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9:23-28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극심한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죠.

2) 철학

오늘날 우리는 철학을 종교와 분리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은 그 영향력이 대단했죠. 이원론(dualism)은 물질과 영혼을 둘로 나누고 물질은 저속한 것이며 영혼만이 고귀하다는 세계관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우화는 아주 유명하죠.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벗어나 이데아에 이를 때에야 진정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원론이 말하는 구원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를 벗어난 영혼의 불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구원과 세계관의 근간인 것 같아요. 육체는 어차피 소멸될 것이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1) 스토아주의(Stoicism)

스토아 철학의 주창자는 제노(Zeno)였습니다. 그는 주전 3세기 초 철학자로서 아테네에 와서 야외 현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야외 현관이 헬라어로 "stoa"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물질주의자 였는데요. 그가 모든 물질 속에 이성, 또는 로고스(logos)라고 부른 "세계영혼"(world-soul)이 주입되어 있다고 본 것을 제외하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주의는 "범신론"(만물이 신이다) 또는 "만유 내재신론"(신이 만물의 일부)라고 주장했죠. 인생을 만족스럽게 사는 비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18에 아테네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대화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재하신다(27절 참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를 강조하면서 아테

네 시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주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면서 균형을 맞추죠(24-26절).

(2) 에피쿠로스주의(Epicureanism)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제노가 스토아주의를 설립하고 있던 무렵, 아테네에서 가르치면서 제노의 라이벌 철학 학교를 설립합니다. 스토아주의의 "신"(god)이 너무 내재적이라면 에피쿠로스주의 "신들"(gods)은 너무 초월적입니다. 에피쿠로스 역시 물질주의인데요. 모든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신들을 세계와 유사한 물질로 보았으며, 그래서 세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을 세계의 관심사로부터 제거해버린거죠. 신들은 불가지 즉 알수 없는(unknowable) 존재이며, 죽음은 한 개인의 의식적 존재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나중에 영국의 이신론(deism)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신론이 뭐예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저 위 어딘가에 있는데 창조한 후에는 내버려 둔 거예요. 또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현대 시대의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거나 쾌락주의를 조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도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이니 생을 즐겨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에 에피쿠로스주의에서의 삶의 비결은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유명한 슬로건은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가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였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막무가내식 쾌락주의를 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소 병약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으로 육체적 정욕의 직접적 또는 분방한 방종이 아닌 장기간의 마음의 평화 및 행복을 추구했어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우정을 개발하고 문화적 활동을 즐기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 정욕 추구를 절제하고 연기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용과 무절제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만났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의견을 같이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계시고, 언젠가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24-31절).

이외에도 견유주의(Cynicism), 회의주의(Skepticism), 신 피타고라스주의(Neo-Pythagoreanism) 등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은 건너뛰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Gnosticism)

대략 기독교의 탄생과 그 시기가 일치하는 또 다른 유력한 종교는 영지주의였습니다. 물질과 영의 플라톤적 이원론에 기초를 둔 영지주의는 물질세계가 본질적으로 악하고, 오직 영의 세계만이 잠정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반응을 초래했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다시 상환할 수 없으니까(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육신적 정욕에 빠지는 쾌락주의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금욕주의를 실행했는데요. 육체가 본질적으로 부패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육

신적 만족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 7장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은 모든 사람 내부에 거하고 있는 신적인 불꽃을 인식하고 해방시킴으로써 영혼이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도록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영지(gnosis,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통해 가능했는데, 이 영지란 지적인 본성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영지주의 분파의 회원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스런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관련 지식은 보통 자신의 신적 기원, 자신의 현재 구원의 상태, 미래의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이생에서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단지 죽어서 물질세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암 확정을 받고 친척 어른 한 분이 한 여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분께 기도받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 또 그 분이 회개해야 할 것들을 알려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알려주신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순복음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제 신학적 배경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가 뭔가요? 기록된 성경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는 데서 멈춰서는 것이 칼빈주의 성경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누군가의 말을 통해 확인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어른이 간곡히 가라하셨기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다행이 그 여 목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더군요. 그 분이 하시는 것이 꼭 영지주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신비한 지식이지요. 현재 구원받았는지 미래에 구원 받을 것인지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회당 예배와 연구는 기독교 교회 발전 과정에서 중심이 된 형태를 띠니다. 안식일 예배의 순서는 대체적으로 초대 기독교 예배자들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마쳤는데요. 그 중간에 그 날에 읽을 본문을 기초해서 토라, 예언서, 시편(이 순서는 결국 고정적인 성구집 주기가 됨)의 낭독이 들어갔으며, 회당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낭독에 탈굼(성경의 아람어 의역)과 설교를 곁들였습니다. 회당은 공동체가 다양한 모임을 위해 사용했으며, 주로 약 5세부터 12, 13세까지의 소년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요. 대다수 1세기 유대인 남자들이 문맹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 4:13의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구절을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문맹이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모세오경)를 줄줄 암송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줄 아시죠? 학문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13세 이후에 랍비 문하로 들어가 공식적 도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민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속 법정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지도자들이 필요할 경우 지방 판사의 역할을 했죠. 그렇기에 고린도교회가 교회 내 분쟁을 위해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원래 그들은 단순한 성경 필사자였지만, 성경 내용에 대한 그들의 박식함이 그들을 율법 교사 및 율법 전문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용어는 보통 동일한 그룹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바리새파 출신들이었지만, 다른 유대인 분파들에서도 발견됩니다. 1세기 초에 가장 유명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힐렐(Hillel)과 샴마이(shammai)였습니다. 힐렐파는 좀 더 진보적이어서 해석의 폭이 넓었습니다. 샴마이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산헤드린

산헤드린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끄는 이상적인 71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고, 아마 양쪽에 속하지 않는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두개인들보다 수가 많고 인기도 많았지만, 법정 임명에 있어서는 산헤드린에서 주로 사두개인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로마는 대체적으로 산헤드린에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사형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 권한에 두었습니다.

*유대교는 이방 세계를 위한 하나의 종교적 선택 사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였던 당시에 유대교가 보여줬던 높은 도덕적 수준은 헬라 세계에 매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래 들어 보수 기독교가 장외집회 등 사회적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팀멘토분과 현장에 참여했었는데요. 서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구나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단, 지역을 초월하여 이 민족을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 전후 저희 신대원 교수님 두 분은 수업시간에 기독교 집회에 대해 조심스레 평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세를 과시해서 역사를 바꾸어 본 적이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세를 과시하고 힘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더 심어줄 것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영어로 “Protestant”이지 않습니까?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의 저항은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유럽을 뒤집어 엮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대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필요한 것은 기독교인들만이 품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특한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해야 합니다. 왜 나랑 다르지? 왜 저 사람은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행복하지? 왜 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손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바본가? 그런데 궁금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일제 시대때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것은 기독교인들의 앞선 의식과 높은 도덕수준, 뜨거운 민족심, 교육열에 대한 열망, 복음에 대한 열정 등이었습니다. 개인의 회개들이 모여 교회의 부흥이 왔고 교회의 부흥이 민족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민족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구성원들

이스라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보통 농부들, 어부들, 기술자들, 상인들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예루살렘에 갈 여력이 있을 때 그곳의 성전을 방문하여 속죄제사를 드리며 구약의 주요 율법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발전한 수많은 구전들(oral laws)과 추가적인 법전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갈망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첫 번째 팔로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이 평범하고 신실하고 때때로 심지어 가난한 유대 평민들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자료들은 때때로 이 그룹을 암-하-아레츠("그 땅의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특별한 그룹들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 바리새파(Pharisees)

이들은 초기 하시딤으로부터 성장했을 것입니다. 초기 하시딤은 셀류코스(시리아 통치) 왕조에 의해 헬라화에 저항하던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자 했던 일반적으로 인기 있고 두드러진 평신도 그룹이었습니다. 주요 활동 영역은 회당이었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토라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독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적용점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7:5; 마 23:2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즉 "구전 율법"인데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 진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을 같은 잣대로 정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요 3:1). 아리마대 요셉 역시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느 분파보다 바리새인들과 밀접하셨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 돼 가시기도 합니다.

(2) 사두개파(Sadducees)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헬라화를 좇아갔던 왕조를 오히려 지지한 그룹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귀족이었고 부유층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사실상

사두개라는 이름은 십중팔구 “사독” 제사장 가문으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예루살렘 내부와 주변에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으며, 성전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부패했다는 사실이 암시됩니다. 예를 들면, 환전상들을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유숙하게 하지 않고 성전 경내로 들어오도록 한 정책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점에서도 혁신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내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을 엮어버리셨죠.

그들은 구전율법을 배척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는 했지만 모세오경에서 가르치도록 입증되는 교리들만 구속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불멸, 부활, 천사들, 귀신들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이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고 로마를 반대하기보다는 공존하면서 성전을 통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두개인은 반복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또 부활을 비꼬기 위해 형수와 결혼다가 계속 죽게되는 동생들 얘기를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입증하시기까지 하죠.

(3) 에세네파(Essenes)

요세푸스가 이 그룹을 언급하긴 하지만 신약 어디에도 이 이름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세네라는 이름은 ‘경건한’, 또는 ‘거룩한’을 의미하는 아람어 하스야(hasya)에서 유래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시딤의 후손으로 생각됩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보다 더 헬라화와 로마화에 저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묵시적 성향이 있었고 그들의 문헌에서 “의의 교사”로 알려진 익명의 지도자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었으며 사회적 혁명으로는 메시아의 시대가 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벗어나 율법에 열성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인내로써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했죠. 이들은 두 메시아의 강림을 대망했는데, 한 메시아는 제사장 메시아이고 한 메시아는 왕 메시아였습니다(각각은 서로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

(4) 열심당(Zealots)

행 5:37에 보면 주후 6년에 갈릴리의 유다가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 치하의 인구 조사 및 재산 등록에 맞서 폭동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행 5:36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21:38에 보면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간 이름 없는 애굽인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중 한 명도 열심당원 시몬이었죠(눅 6:15).

*우리가 유대 분파들과 헬라/로마 시대 때 종교상을 보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와 윤리적 타락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배경

1) 지리



이스라엘의 지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상당히 다른 네 종류의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안 평야는 비옥하고 제국의 다른 지역들과 무역을 위한 항구도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야채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중앙 산간지역은 주로 목재를 생산하는 거칠고 암석이 많은 지대 뿐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낮은 구릉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부 갈릴리의 이스라엘 골짜기와 전체 요단 골짜기는 그 나라의 곡창지대를 형성해, 그 지역에서 많은 곡물들, 특히 밀이 자랐으며,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의 작물도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남부 유대 지방과 이두매 지역은 가장 큰 사막이나 광야 지역이어서 유목민들과 그들의 다양한 양떼, 염소떼, 낙타떼 등에 이용되는 것 외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중앙 산악 지방 “산들” 대부분은 고도가 해발 약 1,500피트에서 3,500피트 정도로 다양하고 가장 먼 북동쪽에 있는 헬몬산은 그 높이가 해발 9,200피트(2,800미터) 이상입니다. 백두산이 2,744미터 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해는 해수면보다 1,296 피트(약 400미터)나 낮아 육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영하의 기온에 눈으로 덮힌 헬몬산으로부터 뜨겁고 건조한 남쪽 사막까지 단기간에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약 161km정도 되었습니다. 겨울은 우기이고 여름은 건기이며 일 년에 두 번 있는 수확의 시기에 서로 다른 작물들이 번갈아 가며 수확되었습니다.

2) 인구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 약 5천만명,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약 4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약 70만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거주했고 나머지 3백만 명 이상은 디아스포라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이집트)와 안디옥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약 75만명, 안디옥에 약 50만명이 살았습니다. 아테네와 다소는 다소 작았지만 중요한 대학 도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는 각각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도시 선교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내부는 약 2만 5천명이 살았고 그 근방으로 대략 10만 명 정도가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 회심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니까 대략 2만명으로 잡아도 예루살렘 인구의 1/5이 개종한 것입니다.

3) 운송과 통신

로마는 고대 세계에서 최상의 여행과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7세기 또는 그 이후까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로마의 길은 자갈길로 깔려 있었으며, 두 마리 말이 끄는 병거가 양쪽으로 동시에 두 개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병사나 특사가 말을 타고 하루에 평균 약 40km를 이동할 수 있었고 길게는 80km까지도 이동이 가능했

습니다. 만약 건강한 말을 비상시에 이용했을 때 최대 그보다 두 배 정도 여행도 가능했습니다. 길에서도 하루에 약 32km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건강한 사람이 걸어갔을 때 약 3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요 도로들은 비교적 안전했지만 황야 지역에 있는 인적이 드문 길은 강도들의 은신처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복음서(눅 10:29-37)에 강도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여인숙은 지역 곳곳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적들과 매춘부들의 소굴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보다 더 명망있는 사람들은 친척들, 친구들,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들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머무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하는 제자들에 대한 환대는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 되었습니다(마 10:11-13; 요삼 5-8절). 화물선들의 크기는 대략 55미터 정도 됐구요. 천이백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고 승객은 6백 명 정도 짐과 함께 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갔던 죄수 운반선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지요.

4) 집

로마 내부와 로마 주변에 살았던 부유층의 사람들은 여러 층으로 되고, 단독 건물로 있는 벽돌 저택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 건물 내부에는 한번에 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홀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뜰이 있고 방이 열두 개인 큰 집이 가버나움에서 발굴되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집에서도 120명이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수의 보통 사람들은 방 하나인 이층 구조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리된 거주 숙소와 이층에는 짐승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검소한 모든 집은 보통 빗장과 자물쇠가 있어서 밤에 문을 걸어 잠갔구요. 창문은 작았는데 이는 안전과 단열을 위해서였습니다. 눅 15:8-10절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들고 쓸면서 열심히 동전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형적인 음침한 틈 정도의 창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을 매우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문화적 가치들 중 중요한 것 하나만

영예와 치욕 문화(Honor and Shame culture)

예수님 당시 문화 중 가장 지배적인 것은 영예와 치욕 문화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 또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등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이 영예롭게 되는 것이 극히 중요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울무에 빠뜨려 예수님의 영예를 무너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막 11:27-33을 보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거론하시면서 오히려 대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면서 그는 영예롭게 되시고 지도자들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